

● 한수원, 고리원자력 방사능방재 합동훈련 실시



한국수력원자력은 5월 15일,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능 방재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4년마다 실시하는 이 합동훈련은 고리원전 2호기 방사성물질 누출사고를 가상하여 중앙정부, 지자체, 원자력사업자가 발전소 주변 주민보호 및 환경보전을 위한 유기적인 상호협조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훈련이다. 이번 훈련에서는 부산시, 기장군, 경찰청, 육군 제53사단장, 지역주민, 교육과학기술부, 소방방재청 등 28개 기관에서 6,500명이 참여하고, 헬기 5대, 경비정 2정, 제독차 11대, 소방차 17대와 방사선계측기 71대 외에도 전시장비, 물자, 보호의 등 32종 1,468점이 동원되었다.

● 남동발전, 여수화력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배출권 확보

한국남동발전 여수화력발전처는 5월 16일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사업명 : 발전보일러 고효율 증기터빈 도입을 통한 효율개선 사업)에 대해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최종 인증을 받았다.

2004년 3월 준공한 「여수화력 제2호기 발전기·터빈 교체 공사」건이 당시 산업자원부가 고시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에 해당 가능성을 확인하고, '06년 10월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에너지관리공단 실적등록위원회에 신청한 결과 '07년 11월 22일 에너지관리공단 온실가스실적등록 평가위원회로부터 사업타당성을 인정받았다.

이후 '08년 1월에 제출한 모니터링보고서에 대한 현장검증을 '08년 3월 20일 한국품질재단으로부터 수검 받았고, 지난 5월 16일 에너지관리공단 실적평가위원회에서 검증에 대한 인증을 최종적으로 받게 된 것이다.

이번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인증으로 예상되는 CO₂ 배출권은 총 92,339톤이며, 이는 정부구매(KCER) 제도 적용 시 약 4억6천만원의 수익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 서부발전, 삼랑진태양광발전소 종합 준공

설비용량 3,000kWp로 국내최대, 연간 CO₂ 약 2,300톤 저감

한국서부발전(사장 손동희)은 5월 29일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에 소재한 삼랑진태양광발전소의 종합준공식을 가졌다. 이번에 준공한 삼랑진태양광발전소는 삼랑진발전처 하부댐 인근의 유류부지를 활용하여 총 설비용량 3,000kWp로 1단계 2,000kWp는 '07년 9월에, 2단계 1,000kWp 태양광 설비는 금년 2월에 착공하여 지난 4월 29일부터 상업운전을 개시하였다.

서부발전은 지난 2005년 8월 발전회사 최초로 태안화력발전소 내에 120kWp 태양광발전소를 준공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태양광발전소의 건설 경험과 수년간의 운영 노하우를 활용하여 삼랑진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함으로써 국내 태양광발전소중 최고의 시스템 효율을 갖춘 국내 최대의 대용량 태양광발전소를 보유, 운영하게 되었다.

삼랑진태양광발전소의 전력판매수익은 연간 25억원에 달하며 CO₂ 저감량은 연간 약 2,300톤으로서 향후 기후변화협약에 의한 배출권거래 시행 시 부가적인 수익도 창출할 수 있게 되었다.

삼랑진태양광발전소는 서부발전이 신재생에너지분야의 기술개발과 보급 활성화에 동참하고자, 정부와 2005년 7월 25일 체결한 RPA(신재생에너지공급협약)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신재생에너지 건설사업이다.

한편 서부발전은 가로림조력발전, IGCC(석탄가스화복합발전),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원 개발에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1,780억원을 투자하여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 개발을 통해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 중부발전, 제주내연 2호기 건설공사 착공

한국중부발전은 5월 23일 제주화력발전소에서 정장섭 사장을 비롯한 중부발전 및 협력기업 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내연 2호기 건설공사의 착공식을 가졌다.

지난 2005년 준공된 제주내연 1호기와 함께 제주지역 전력 공급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제주내연 2호기는 40MW급의 디젤발전기로 총 861억원의 공사비와 연인원 5만 명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은 현대엔지니어링, 주기기 공급은 두산엔진, 시공은 대림산업에서 담당하게 되며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기초굴착 공사를 진행 중이다.

정장섭 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제주내연 2호기는 세계 평화와 문화의 중심으로 거듭나고 있는 국제자유도시 제주의 든든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체계적인 사업관리와 업체간 상호협력을 통해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이 성공적인 발전소 건설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동서발전, 2008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수상

- 기업지원봉사 부문 大賞으로 선정돼 -

한국동서발전(주)(사장 정태호)가 지난 5월 20일 경향신문사가 주최하는 '2008 대한민국 사회공헌 대상'에서 지원봉사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동서발전은 총 18개 부문 중 '기업지원봉사분야'에 응모해 학계와 산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단의 심사를 거친 후 최종 수상자로 선정되었으며,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날 시상식에 동서발전 오세형 전무를 비롯한 실무직원이 참석해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이번 수상식의 관계자에 따르면 동서발전은 전 직원이 '한국동서발전 사회봉사단'의 구성원으로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소년소녀기장 돌기, 무의탁노인 돌기, 푸른산하 가꾸기 등을 전사증점사업으로 시행하는 등 기업지원봉사 분야에서 모범적인 역할을 해온 것을 크게 인정받았다.

또한 동서발전은 '사랑의 현혈릴레이', '난치병어린이 소원 들어주기', '행복한 훔스쿨' 등 연중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왔으며 '사랑의 김치담그기', '사랑의 난방유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랑을 실천해 지역사회와의 돋독한 유대관계를 형성한 것 역시 이번 수상의 배경이 됐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수상소감에서 "우리회사는 이번 수상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보다 나은 사회공헌활동 노력으로 보답할 것"이라며 "특히 우리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사회공헌활동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서발전은 올들어 새로이 '노숙자가 없는 사회의 구현'을 위한 「노숙자 사랑나눔」캠페인을 통해 전국 2만 5천 여명의 노숙자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 남부발전, 중국에 대용량 풍력발전 합자사업 계약

한국남부발전(주)(사장 김상갑)은 2008년 5월 29일자로 중국의 내몽고자치주에 20만1000kW 규모의 풍력발전소 건설, 운영사업에 참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본 프로젝트는 풍력자원이 양호한(평균풍속 7.5m/s) 중국 내몽고자치주 오란찰포시 인근에 1,500kW급 134기를 설치, 운영하는 사업으로 2007년 12월 중국 정부로부터 사업비준을 취득하였으며, 단일 규모로는 중국 최대의 종합합자 풍력발전사업이다.

이미 지난 4월 건설공사가 착공되어 건설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에 10만 5백kW 상업운전을 시작으로 내년 12월 종합 준공을 준비하고 있다. 여기서 생산된 전기는 중국의 신재생 에너지법에 따라 송전망회사에서 전량 의무적으로 구매하는 보장사업이기도 하다.

남부발전은 중국 국영발전회사인 화전신능원공사와 합자방식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였다. 본 프로젝트의 총사업비는 19억2천만 위안(약 2,507억원)으로써 1/3은 자본금이며 나머지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법으로 조달하게 된다. 남전은 자

본금의 24.5%에 해당하는 지분을 출자하며 25년간 발전소 운영에 참여할 예정이다.

남부발전은 이러한 청정에너지 풍력사업에 투자함으로써 지분비율에 따른 배당수익은 물론 51만톤의 CO₂ 감축효과에 따른 탄소배출권(CER)을 확보하게 되며, 이는 2013년 이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의무감축국 지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국제기준에 맞는 환경경영 체제를 선도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파트너의 모회사인 중국화전집단공사는 중국내 3위 국영발전회사로서 남부발전은 이번 사업개발을 통하여 중국 및 해외 전력시장 개척의 활로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부발전은 이미 전력그룹사 최초로 상업 풍력발전 시설(제주 한경풍력)을 운영 하는 등 국내 풍력산업의 선구자적 입장을 견지하여 왔으며,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미래 전략사업으로 삼고 본 사업 진출을 계기로 국내외적으로 더 많은 투자를 통하여 에너지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 현대중공업, 전기설비전 등 참가

- 2008 국제전력 IT 및 전기설비전 참가

현대중공업은 2008 국제전력IT 및 전기설비전에 참가하였다. 전력기술인협회와 KOTRA의 공동주최로 서울 COEX에서 5월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개최되는 2008 국제전

력IT 및 전기설비전에 현대중공업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는 초고압변압기, 초고압차단기가 조합된 420kV 변전소 모형과 배선용차단기, 기증차단기, 진공차단기, 인버터 및 디지털보호계전기, 전동기제어반을 전시하였고 기전연구소의 연구과제인 능동형 텔레메트릭스와 자동화변전소 연구개발품을 전시하였고, 아울러 엔진사업본부에서도 쿠바의 지폐에 삽입되어 화제가되었던 이동식 발전설비에 대한 해외 바이어 상담을 하였다.



- 2008 대한민국 그린에너지엑스포 참가

현대중공업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는 2008 대한민국 그린에너지엑스포에 참가하였다.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 공동주최로 대구 EXCO에서 5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개최되는 2008 대한민국 그린에너지엑스포에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는 태양광 모듈, 셀, 웨이퍼, 실리콘, 잉곳 및 태양광인버터를 전시하여 국내 유일의 태양광 종합 메이커로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당사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집중 흥보하였다.

전전시스템 사업본부는 지난 5월20일에 충북 음성군 소이산 업단지 내에 총 60MW 규모의 태양광 제1공장 준공식을 거행하였고, 19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추가 투자에 대한 투자 조인식을 충청북도와 체결하였으며 향후2010년에는 총 330MW 규모의 대규모 태양전지 생산능력을 가지게 된다. 현재 60MW 규모의 태양광 제1공장은 30MW 태양전지 생산라인을 가동 중이며, 2009년 초까지 60MW로 증설될 예정입니다. 제1공장 옆에 위치하게 될 270MW 규모의 태양광 제2공장은2010년 초까지 단계적으로 생산설비를 설치 및 가동하게 된다.

● 두산중공업, 중국 원전시장 진출 가속화

두산중공업(사장 박지원)이 중국 최대의 원전 발주처와 MOU를 체결하고 중국 신규원전 시장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두산중공업은 28일 중국 북경 현지에서 이윤호 자식경제부장관, 이남두 두산중공업 부회장, 양창리(Yang Changli) CNNC 부총경리 등 양국 정부 및 회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핵공업집단공사(CNNC, China National Nuclear Corporation)와 중국내 원전 사업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에 따라 두 회사는 중국 내 대량 발주가 예상되는 신형 원전 사업에 두산중공업이 적극 참여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토대로 중국이 기득권을 가지는 서남아시아, 아프리카 등에서도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두산중공업은 이번 MOU로 향후 CNNC가 발주하는 중국 신규 원전의 주기기 시장에 참여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CNNC는 중국 최대의 국영회사로서, 향후 2020년까지 매년 원자력발전소 3기 이상을 건설할 계획으로 중국 최대의 원전 발주처이다.

두산중공업 김태우 부사장(원자력BG장)은 “이번 MOU를 통해 중국 원전 발주처 및 중국 정부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함으로써 향후 중국 원전시장에서 안정적인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면서 “향후 중국 원전시장 진출을 더욱 가속화해 원전 주기기 공급사로서의 위상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두산중공업은 CNNC가 중국에서 발주한 프로젝트 중 지난 1997년 중국 진산 3단계 원전에 들어갈 증기발생기를 수주한 것을 비롯해 2005년 중국 진산 2단계 원전에 들어갈 원자로, 그리고 지난해에는 중국 최초 신형 원전인 산먼 원전에 들어갈 AP1000 주기기를 수주한 바 있다.

한편, 두산중공업은 지난해 7월 중국 최초의 제3세대 신형 원전에 들어갈 주기기를 수주한 데 이어, 지난 8일에는 미국 최초의 신형 원전에 들어갈 주기기를 수주하는 등 해외 원전 시장에서 잇따라 성과를 거두고 있다.